

##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연구하는가? &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 (“Why Study the Book of Zechariah?” & “Understanding Its Historical Context”)

### I. 스가랴서 전체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다

A. 스가랴서 전체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왜 예루살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보고 계신 것, 느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해 동일한 열심을 가지기를 원한다. 성경에서 시온은 보통 예루살렘을 지칭한다.

<sup>2</sup>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 <sup>3</sup>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 (슌 8:2-3)

B. 예수님의 전 세계적인 정부는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께 중요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와 영원한 계획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sup>17</sup> 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 (렘 3:17)

C.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 쉽게 무시하곤 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사역과 재정,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리더십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함을 온 열방에 증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신 것들을 시행해나가는 그분의 주권과 신실하심과 관련되어 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백성들 위에 두시며,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붙여두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모든 열방 앞에 마지막 때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다.

D. **예루살렘은 하나뿐인 모델이 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어떻게 다루실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이 된다. 우리는 성경이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과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는 내가 부르는 “동일한 종류로, 그러나 적은 강도로”의 원칙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대 환란과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에 풀어놓으실 영광과 심판은 모두 “동일한 종류로, 그러나 적은 강도로” 열방과 이 시대의 교회 위에 부여지게 될 것이다.

E. 우리는 스룹바벨 시대에 일어난 일들과 친숙해야만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성전은 “기도의 집”(사 56:7)이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확증하시며, 이 곳의 목적이 기도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마 21:13). 따라서 스가랴서는 또한 예루살렘에서의 기도 운동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스가랴와 스룹바벨을 어떻게 관계 지으셨는지를 볼 수 있으며,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에 깊이 연관된 이들을 어떻게 관계 지으시는지를 볼 수 있다.

##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연구하는가? &amp;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

- F.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예루살렘의 예언적인 부르심에 동의함으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 비판적이 되거나, 무관심하거나, 동떨어져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겪을 고난과 실패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애곡해야 한다.

<sup>10</sup>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사 66:10)

- G.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사단은 예루살렘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그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신가?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800 번 이상 언급되고 있으며, 시온은 160 번 이상 언급된다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이를 지칭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대하 33:4; 시 48:8; 욥 3:20; 미 4:7).

<sup>2</sup>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 87:2)

- H.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투: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투는 강도 높은 영적, 정치적, 군사적 전투이다. 이 전투에 관여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우선 순위이다. 모든 열방들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모일 것이며, 온 교회는 예루살렘을 위해 “영적으로” 모일 것이다 (슌 12:3; 14:2).

- I. 예루살렘의 독특성: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며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도 유례없이 헌신되어 계신다.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에 독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축복할지, 저주할지에 대한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왔다.

<sup>3</sup>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 (창 12:3)

- J. 예루살렘이 받는 축복은 매우 독자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번영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sup>6</sup>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 <sup>9</sup>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 122:6-9)

## II. 선지자 스가랴

- A.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이로 인해 그는 제사장적인 직무와 성전의 직무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젊은이였다 (슌 2:4). 그의 가족은 BC 536 년에 바벨론 유수로부터 돌아왔다 (느 12:1-4). 스가랴가 그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는 그가 매우 어린 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스가랴의 가족이 경건하고 용기 있는 가정이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기도의 집”을 짓기 위해 700 마일(1,100km)이나 되고, 5 달이나 걸리는 여정을 광야를 거쳐서 왔기 때문이다.

- B. 스가랴는 자신의 메시지로 인해 순교 당했다 (마 23:35; 눅 11:51).

- C.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에 이어 스가랴서가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

## III. 스가랴서의 다섯 가지 메시지

##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연구하는가? &amp;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

1. 이스라엘이 순종할 것을 초청함 (1:1-6)
2. 하루 밤 동안의 여덟 개의 환상 (1:7-6:15)
3. 금식의 필요성 (7-8 장)
4. 이스라엘의 해방, 강건케 하심, 다시 모으심 (9-11 장)
5. 이스라엘의 구원, 정련케 됨, 변화됨 (12-14 장)

## IV.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전반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알기

- A. 스가랴의 메시지의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겪었던 가장 큰 국가적 재난을 배경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70 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BC 606-536) “포로 수용소”에 살았다. 이는 몇 가지에 있어서 전에 없던 재난이었다.
- B. 스룹바벨의 시대에 (BC 538-516) 기도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극적인 스토리는 이 시대에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성전은 그분의 기도의 집이다. 이사야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기도의 집**(사 56:7)으로 언급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기능은 밤 낮으로 계속되는 예배의 성소가 되어야 했다.
- C. 이 드라마는 이스라엘이 70 년 동안의 포로기에 들어가기 몇 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시작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며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sup>10</sup>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한글 KJV: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렘 29:10)
- D. 이 스토리는 성경에서 3 곳에 나타나 있다 (스 1-6 장, 학 1-2 장, 속 3-8 장);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기도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일했던 네 리더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이다.
  1. **스룹바벨**: 개척가적인 리더로서 일했던 유다의 지도자;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의 집 건물(성전 건물들)을 짓도록 독려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2.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도의 집에서 매일의 일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3. **학개**: 이 나이 들은 선지자는 BC 520 년에 5 개월 동안(8 월-12 월) 4 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연구하는가? &amp;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

4. **스가랴:** 스가랴는 학개와 동일한 기간 동안 예언했다 (스 5:1). 학개는 나이가 더 많은 선지자였다; 그의 사역은 4 달간의 기간 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달 동안만 동시에 사역했으며, 스가랴는 학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언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동시에 연구해야 하는데, 이는 스가랴가 학개의 예언 가운데 조명된 진리를 더욱 세워나갔기 때문이다. 그는 BC 519 년 2 월 15 일 밤에 8 개의 환상으로 구성된 가장 긴 예언을 받았다 (슥 1:7-6:8). 이 8 개의 환상들의 중심 주제는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다 (슥 1:16; 4:6-10; 6:12-13).
- E. 두 바사(페르시아) 왕들: **고레스**(Cyrus, BC 600-530)는 BC 536 년, 유대인 포로들이 70 년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재정을 공급했다 (스 1 장). **다리오**는 BC 520 년에 남은 자들이 성전을 다시 짓도록 재정을 공급했다 (스 6 장).

## V. 출거리 개관

- A. **풍성한 예언적 출거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적인 역사들은 놀라웠다. 여기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고레스가 포함된다.
1. 고레스 왕 이전 약 200 년 전 (BC 750), 이사야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풀어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사 44:28).
  2. 약 200 년 후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힐 것을 예언했으며, 그렇지만 70 년 후에 풀려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렘 25 장; 29 장).
  3. 예레미야 이후 50 년이 더 지난 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고무된 다니엘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구했다 (단 9 장).
  4. 몇 년 후에, 성령께서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풀어주며, 그들에게 “수백만”달러를 공급함으로(스 1 장)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기도의 집을 재건하도록 하셨다.
- B. 그들의 전에 있었던 풍성한 예언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약 50,000 명의 유대인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 에스라는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한다 (스 1:5). 이는 실제였다, 그러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도착했고, 곧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과 화답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스 3:10-11).
- <sup>10</sup>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sup>11</sup>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스 3:10-11)
- C.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다섯 달이 걸렸으며, 700 마일이나 되는 거리였다 (스 7:9). 남은 자들은 바벨론 군대가 BC 586 년 파괴한 이후 70 년 동안 황폐했던 도성과 성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이 세우도록 명령 받은 예배 형식(대하 29:25)을 다시 세울 목적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연구하는가? &amp;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

- D.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은 2 년 안에 초기의 기대와 설렘을 잃어버렸다. 그때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며, 대적들의 방해와 경제적인 재난과 흉년으로 인해 **16 년 동안 일을 멈췄다** (BC 535-520).
- E.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주요 방해물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드러내놓고 반대했다 (스 4:1-5, 24).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영적인 무기력과 타협,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학 1:1-11; 속 1:1-6). **경제적인 재난**은 가뭄과 농경 실패로 가중되었다 (학 1:1-11).
- F. 기도의 집은 21 년에 걸쳐 재건되었다 (BC 536-516).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날은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낙담하여 일을 중단한 **BC 535 년**과(스 3:10; 4:24) 다시 일을 시작한 **BC 520 년**이다 (스 5:1-2).

## VI. 에스라 1-6 장: 주요한 일들 (BC 536-515)

- A. 에스라 1-6 장은 기도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 B. BC 536 년에, 바사(오늘날의 이란)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오늘날의 이라크)을 무너뜨렸다.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지 1 년 안에,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서 유대인 포로들을 풀어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집을 세우도록 하는 놀라운 법령을 발표했다. 그는 그들을 재정적으로도 도왔다 (스 1:1-5). 바사의 왕은 노래하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왕의 재산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스 6:8). 스룹바벨의 때에는 전임으로 노래를 하며 악기를 다루는 이들이 있었다 (스 2:65; 느 12:45-47).
- C. 에스라 1-2 장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50,000 명의 망명자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70 년 간의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에는 백만명이 넘는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과 직업이 있었고, 고레스 왕이 방금 그들을 자유케 했기에 삶은 더 나아졌다. 그들은 돌아왔는데, 이는 바벨론에서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닌,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떠나는 것은 머무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 백성들은 움직이는 것을 선택했다.
- D.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는 희생이 필요했다. 이 백성들에 대해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들이 편안한 삶을 떠나서,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 황폐해진 도성으로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결정하기까지 필요한 확신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믿음의 남녀들이었다. 이들은 “불 같은” 이들이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때, 성전은 부서진 돌 더미가 쌓여 있을 뿐이었다.
- E.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한 첫 해(BC 536)의 7 번째 달에 제단이 세워졌다 (스 3:1-2). 둘째 해에, 그들은 성전 자체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스 3:8-9).
- F. 몇 달 후,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그들은 이를 경축했다. 나이 많은 이들은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너무도 초라했기에 통곡했다 (스 3:10-12).

<sup>10</sup> 건축자가 여호와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sup>11</sup>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sup>12</sup>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스 3:10-12)

## 제 1 장: 왜 스가랴서를 연구하는가? &amp;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

- G. 기도의 집을 짓는 이들에게 대적들이 일어났으며, 공사는 BC 535 년에 중단됐다. 유대인들은 낙담했으며 괴롭게 되었다. 그들의 적들(4 절)은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해 모사꾼들을 고용했으며(5 절), 정부에 그들을 대적하여 고소했다 (6 절).
- <sup>1</sup>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 <sup>4</sup>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sup>5</sup>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한글 KJV : 모사꾼들을 고용하여] 그 계획을 막았으며 (스 4:1-5)
- H. 바사(페르시아) 정부는 이에 개입하여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했다 (24 절).
- <sup>24</sup>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BC 535 에 멈춰]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 [BC 520]까지 중단되니라 (스 4:24)
- I. 유대인들은 방해와 반대에 부딪쳐 낙담되었다. 이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과 목적 의식을 상실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로 하는 큰 결정을 했지만, 이제 그들은 이 일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었다. 반대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그들은 낙담하며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학 1 장; 속 8:10).
- J. 50,000 명의 사람들이 700 마일의 여행을 하며 “스텝”이 된 것을 생각해보라. 16 년 후에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그들은 기도의 집을 짓기 위해 광야를 뚫고 5 달이나 걸리는 여행을 했다. 그들은 확신에 가득 차서 이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본래 예라고 반응하며 순종했던 이들이다.
1. 그러나 동일한 이 사람들은 얼마 후에, 자신들의 노동이 별로 중요치 않다는 고통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가치가 없어. 나는 여기 수많은 기름 부음도 없는 기도 인도자들과 함께 있어. 나는 피곤하고 지쳤다. 나는 이런 금식이나 하고 있고, 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여기는 마치 감옥 같아.”
  2.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이다, “아니다, 여기는 감옥이 아니다. 너는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단다. 이것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광의 부르심이란다. 이와 같은 시간을 위해 너는 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된 것이란다.” 그들은 말했다, “네, 그러나 시작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것은 50,000 명이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실수였다.
- K. 16 년 간 중단된 후에(BC 535-520),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리더들을 각성시키셔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셨다. 반대와 낙담으로 인해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중단했으며, 그들 자신의 집들과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 주께서는 이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셨다.
- <sup>1</sup> [BC 520 년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sup>2</sup>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스 5:1-2)
- L. 5 년간(BC 520-516)의 부지런한 작업 후에, 그들은 성전을 완성했다 (스 6:15-16). 그들은 낙심되고 재정적으로 해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기도의 집을 지어나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들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셨다 (학 1-2 장).

<sup>14</sup>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sup>15</sup> 다리오 왕 제육년 [BC 515]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스 6:14-15)